

연구논문

#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노자경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 Economic stress perception of farm households' wives and related variables in Korea

Roh, Ja Kyoung

Lecturer,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measure the level of economic stress perception in Korean farm households. (2) to identify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such a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conomic stability. The data from 505 farm households' wives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correlation, oneway ANOVA,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mean value of economic stress perception on the 505 wives was 33.5 points out of a possible 100. Among 3 subsectors, income stress perception had highest scor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family size, type of farm household, financial manager, debt, credit grant assistant, wife's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wif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economic stress perception of wives in the ANOVA analysis. So di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stabilit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conomic stability, debt presence, and wife age were verified explaining 23% of the variance of economic stress percep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farm wives had relatively high economic stress perception in the case of low economic stability, getting into debt, and low age.

**Key Words** : perception of economic stress, economic stability

## I. 서 론

가족은 구성원 개인 및 가족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생활사건의 경험이나 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용가능한 자원이 부족해지면, 괴로움, 부담감, 불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표출되는 부정적 스트레스(distress)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경제자원은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요소이므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복지수준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오늘날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와 국민의 경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원의 불균등과 절대적·상대적 욕구의 증가 및 다양한 생활사건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 모두의 지속적인 문제이며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가는 농업구조의 취약성과

도농간 투자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상대적으로 빈곤과 소외를 경험하기 쉬운 경제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sup>1)</sup>. 최근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약축 또한 농가의 경제적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정학 분야에서의 스트레스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연구사례가 많지 않으며, 연구대상자 및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각 생활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안정도 등 관련변수가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은 농가의 문제점 완화에 필요한 방향 제시와 정보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제적 스트레스의 개념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하위개념이므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ill(1958)은 스트레스원(Stressor)을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Life Event)과 동일하게 보고,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한 긴장에 대한 가족의 반응상태를 가족 스트레스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특수한 사건의 결과판이 아니라 사건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고통(hardship)의 결과(Burr, 1973; McCubbin 등, 1980)일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원과 고통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긴장상태(Croog, 1970 : 조

희선, 1991에서 재인용)를 스트레스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Lazarus(1976) 역시, 스트레스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각 개인에게 각자의 특유한 유형에 입각하여 반응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어려움(hardship), 긴장(strain), 압박(pressure), 불안정성(instability) 등과 동일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생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고통, 위협에 대해 가족원이 지각하는 곤란 정도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Voydanoff와 Donnelly(1988)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족의 긴장과 불안정성으로 파악하면서, 취업과 소득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 2. 경제적 스트레스의 측정

경제적 스트레스와 하위 영역에 대한 측정과 평가는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즉, 경제자원(소득, 자산, 취업상태 등)의 수준이나 이에 대한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 경제자원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생활사건(스트레스원)의 수준 및 이의 심각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을 객관적 척도로, 이에 대한 안정성이나 적절성 평가를 주관적 척도로 사용한 일부 연구(Voydanoff와 Donnelly, 1988; Conger 등, 1990)는 단일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스트레스 측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있다. 계절에 따라 노동투하량과 소득이 달라지는 농가의 경우는 실직 상태가 아니더라도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별 농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변수는 가계의 경제자원변수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계 구성원의 요구와 비교<sup>2)</sup>함으로써 가계특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정명재(1992)는 전체 도시빈곤가구의 73.8%가 농촌 빈곤가계출신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노자경(1991)은 농가 부부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하위로 평가한 부부의 비율이 각각 35.0%, 37.5%인 반면 도시가계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65.4%, 63.5%로 상대적 빈곤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2) 이러한 측정치는 경제적 복지 혹은 경제적(재정적) 안정도의 개념으로도 사용 될 수 있다.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가 일정수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족원의 요구수준이나 경제자원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생활사건(스트레스원) 경험에 의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여부라는 객관적 수준 보다는 경험의 심각도라는 주관적 수준이 실제로 가족에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는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즉, '농가구성원의 경제적 요구나 경제자원의 변화(경제적 스트레스원)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지각정도'를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의 심각도'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의 객관적 평가적도로 사용되던 경제자원수준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심각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제적 안정도'라는 독립변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 3. 경제적 스트레스원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원은 일반 가족의 스트레스원은 물론 농가 특유의 스트레스원을 포함한다. 주관적 농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후, 불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소득, 사고, 작업 부담, 재산이전, 농기구 고장, 발병, 정부규제,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위험, 지지체계와 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등이 농촌 지역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osenblatt과 Anderson, 1981; Weigel과 Weigel, 1987; Rosenblatt 외, 1985 등). 한편 Walker와 Walker(1987)는 높은 재정적 압박, 부채부담, 가정내 낮은 권력, 농사에 대한 낮은 통제력, 작업 부담 등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Weigel과 Weigel(1987)은 두 세대로 이루어진 농가의 스트레스원 목록을 22개 항목으로 구성하면서 그 중 경제 생활과 관련하여 빠듯한 돈으로 생활하는 것, 경제적 타격에 대한 두려움, 지출에 대한 가족원간의 불일치, 농업 투자와 관련된 높은 위험의 감수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Conger 등(1990)은 농촌지역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경제적 긴장 수준을 청구서 지불의 어려움, 수지균형을 맞추는데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의 인식을 암시하는 행동적 반응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가지 항목에 대한 행동적 적응 여부 즉, 재산의 매각 또는 생명보험의 현금화, 주요 구매의 연기, 치료 연기,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림, 정부 보조 수혜, 파산 신청 또는 수락, 청구서 지불 연기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의 인식을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일종의 경제적 스트레스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원은 소득의 불규칙성과 불안정성, 소비지출의 어려움, 자산의 부족과 비유동성 등과 관련된 생활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하위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소득과 관련된 생활사건으로는 소득의 감소, 농외소득원의 제한, 현금소득의 부족을, 소비지출과 관련된 생활사건으로는 여러 소비지출 비목은 물론 조세공과금과 부채 상환 등의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지출의 어려움을, 자산과 관련된 생활사건으로는 순자산 감소, 농업생산투자의 어려움, 가계투자의 어려움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경제적 스트레스 관련 변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자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여기서는 관련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 1) 재무관리자와 가계관리능력

일련의 연구(Wilhelm과 Ridley, 1988; Walker와 Walker, 1987)는 여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및 이로 인한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여성의 높은 재정관리 수행 빈도와 다양한 역할 부담 및 과도한 책임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Slusher 등(1983)은 자원수준이 낮은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만족스러워 한다면 이는 경제적 환경보다는 효율적인 가계관리 즉, 인적 자원 효율 극대화의 결과라고 하였다.

## 노자경

### 2) 가족원수 및 구성(소득원수 및 구성)

농가의 가족원수는 소득원수에 영향을 주어 소득의 수준과 유형 및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거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농가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노자경(1991)의 연구 결과는 가족원수가 많은 농가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가족원수가 많은 경우 지출에의 요구가 빈번해져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겪을 수 있으므로 실증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3) 연령(세대)

부부의 연령은 가족의 생활주기 단계를 결정하며 가계의 소득과 소비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실증연구에 있어 연령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Weigel과 Weigel(1987)은 부모 세대보다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다 빈번하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고, Walker와 Waler(1987) 역시 농가의 젊은층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여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김미현 등(1993)과 김정옥(1988)의 연구가 있으나, 장병욱(1985)은 연령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 4)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김미현 외, 1993: 김양희 외, 1989: 장병욱, 1985 등)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드물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과 고임금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임금과 취업가능성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조희선, 1991)는 보고도 있다. 즉, 가장 및 배우자의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자원의 확보 및 이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

### 5) 거주지역(지대)

농촌지역 비농가 부부의 스트레스와 실업의 관계를 연구한 Wilhelm과 Ridley(1988)는 비공장 지대에 살고 있는 가족의 가장이 실직하게 되면, 새로운 소득원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정관리 행동

이 많아지고 재정적인 논쟁이 많아지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의 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Marotz-Baden과 Colvin(1986)도 농촌가족이 도시가족 보다 흔해진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사업적 긴장을 겪는다고 보고(Walker와 Walker, 1987)한 바 있다. 이러한 거주지역의 차이는 도농간의 차이뿐 아니라 농촌 지역내 지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소득의 구성(농가유형)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미현 외, 1991: 김정옥, 1988: 김양희 외, 1989 등). 현대 농업에 있어서 경제적 압박의 주된 구성요소는 제한되고 비정규적인 현금유입, 대규모 자본투자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Walker와 Walker, 1987), 일반적으로 농가는 취약한 농업소득 수준과 소득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비유동적인 자산으로 인해 가족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Godwin 외, 1991).

소득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데, 총소득액이 같다 하더라도 농가유형별로 현금소득의 비중과 소득의 유입빈도 등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다를 것으로 파악된다.

### 7) 자산의 구성(부채 유무와 정도)

가계의 자산은 소득의 원천임과 동시에 위기에 대한 대처자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어서, 가계의 순자산 또는 자산/부채, 소득(또는 경제적 지위)의 장기적 변화, 저축 등의 척도들은 소득지표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도 사용되어 왔다. 노자경(1991)은 농가의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가 소득보다 자산과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여 농가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비가 요구되는 시기는 현금소득이 부족한 시기로 더욱 많은 자산의 사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농가 부채의 대부분(1993년에는 전국 농가 평균 부채 683만원 중 77%인 526만

원)은 생산성 부채로서 중농 이상에서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사회적 지지(무상 및 유상 보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Gore, 1978 : Turner, 1981),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자원과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등은 긍정적 적응과 관계된다(Patterson, 1984 : Friedrich, 1979 : Bristol, 1984)는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은 대처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종류도 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9) 경제적 안정도

경제적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므로, 농가 경제자원의 안정성은 생활사건의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sup>3)</sup>.

가족원들의 경제자원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은 소득이지만 소득원의 상실로 소득유입이 감소 또는 중단된다면 가족은 기본적인 경제자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득이 축적된 형태인 자산 역시 중요한 경제자원이다. 소득과 순자산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연가치로 환산하는 '소득-순자산 측정법(Income-Net Worth Measurement)'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가계의 최저생계비로 통제하게 되면 가족원수와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여 가

계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산출된 값이 1이 되면 소득과 순자산을 모두 활용해야만 가족원의 최소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반면, 2를 넘으면 소득이나 순자산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농가의 주관적인 경제적 안정도는 경제자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반영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재정적 안정도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측정된 바 있다(Davis 외, 1985 : 이기영 외, 1992 등).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 농가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농가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안정도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선정 및 척도의 구성

##### 1) 농가의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를 통해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대, 가족원수,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재무관리자, 가계관리능력, 농가유형<sup>4)</sup>, 영농형태, 부채정도, 유·무상보조원 및 영농형태 등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 2) 경제적 안정도

경제적 안정도의 개관적 척도는 농가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총량(총소득과 순자산의 연가치 합)을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가족

3) 스트레스의 측정이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므로 자원 자체보다는 자원에 대한 만족도 또는 적정성 지각이 더 의미 있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자원에 대한 만족이나 적정지각 자체가 객관적인 자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제자원의 객관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전업농은 연누계월수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이며,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농가는 1종 겸업농으로, 농외소득이 더 많은 농가는 2종 겸업농으로 분류한다.

5) 순자산을 연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이자율은 편의상 10%로 하였고, 기대여명은 1991년 기준 여성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가족원수별 최저생계비는 1988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속조사연구의 농촌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93년치로 환산하였다.

객관적 경제적 안정도 = (총소득 + 순자산 연가치) / 가족원수별 최저생계비  
 단, 총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수입  
 순자산 = (고정자산 + 유동자산 + 유통자산) - 부채  
 순자산 연가치 = 순자산 \* 자본회귀계수  
 자본회귀계수 = 이자율 / (1 + 이자율)<sup>n</sup>  
 단, n은 주부의 기대여명

의 요구(가족원수별 최저생계비)로 통제된 값으로 아래식을 통해 구하였다.<sup>5)</sup>

경제적 안정도의 주관적 척도는 농가 주부가 소득과 자산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어떠한가를 '상당히 어려웠다'의 1점에서 '상당정도 여유가 있었다'의 5점 사이에서 평가한 값을 이용하였다.

3)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원과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

농가의 주부가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의 경험 여부와 그 심각도는 소득·소비지출·자산의 3개 영역의 16개 생활사건별로 '경험없다(0점), 경험했으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1점), 경험했으며 약간 심각했다(2점), 경험했으며 매우 심각했다(3점)'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하여, 16개 문항의 합을 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3개 영역의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각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합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각각 0.91로 상당히 높았으며, 스트레스 지각수준 총점과 하위 항목간의 상관계수는 0.49에서 0.78사이에 분포하며,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의 수집 과 분석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고찰과 관찰 및 면접방식의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의 실무자로부터 경기, 강원, 충남, 충북의 4개도의 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지대별로 지역을 추천을 받았다. 본 조사는 1994년 4월 21일에서 4월 29일에 걸쳐 해당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배포한 총 798부 중 716부를 회수하였으며, 비응답과 응답이 누락된 211부를 제외하고 총 50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LSD) 검증, 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지역과 지대별로 농가를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나, 응답율의 차이로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지대별로 20~35%의 분포를 보였으며, 가족원수는 5명인 가계가 30.1%로 가장 많았고, 4명에서 6명까지가 73.9%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37.0%, 40대가 48.5%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가 44.8%, 중졸이 36.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졸 이상은 18.6%로 상당히 적었다. 재무관리를 주로 맡고 있는 사람은 주부인 경우가 가장 많아 37.9%였고, 남편인 경우는 23.9%, 부부공동의 경우도 34.0%였다. 가계관리능력에 대한 주부의 평가는 중간 집단이 3수준이었으며,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농가유형별로 볼 때 표본농가의 절반이상이 전업농이었으며, 1종 겸업농과 2종 겸업농이 각각 22%와 24%로 나타났다. 농가의 영농형태를 주소득작목과 부소득작목으로 살펴본 결과 곡류, 밭작물, 축산, 경제작물(버섯, 약초 등), 과수의 순으로 작목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곡류를 주작목으로 하고 밭작물 등의 기타 작목을 부작목으로 하는 농가가 과반수를 넘었다.

표본농가의 연간 총소득 분포는 대체로 고른편이나 연 5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 농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1993년 전국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 1,693만원 및 같은해 전국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773만원과 비교해 볼 때 표본농가의 소득수준(평균 1,347만원, 중앙값 1,110만원)이 상당히 낮았다. 순자산의 분포는 평균이 8,847만원(중앙값 6,420만원)으로 1993년 전국 농가 평균 1억 2,637만원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순자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산의 분포는 소득의 분포와 같은 하편향일 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가 더 심해서, 하위 3.3%의 농가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던 반면 상위 3.3%의 농가는 3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 중 부채가 있는 농가는 89수준이었으며, 평균 부채액은 885만원(중앙값 340만원)으로 1993년 전국 농가 평균부채액 683만원 보다 200만원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로 돈을 빌리는 상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이었으며, 가족과 친척을 통한

경제적 상호부조 행위는 친구나 이웃보다도 더 적었으며, 무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은 과반수를 약간 넘었다.

2. 농가의 경제적 안정도

1) 객관적 평가

객관적인 경제적 안정도에 따른 농가의 분포는 다음의 < 표 1 > 과 같다.

농가소득만으로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15.8%의 농가는 최저생계 이상의 경제자원이요

< 표 1 > 경제적 안정도의 객관적 평가에 따른 농가의 분포

(단위 : %)

구 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이상	N(평균)
소득안정도(A)	15.8	30.8	27.1	12.1	14.2			457(2.46)
자산안정도(B)	40.4	30.0	17.8	13.0				453(1.70)
경제적 안정도(A+B)	3.4	6.9	18.7	20.5	13.9	11.0	18.3	410(4.26)

구될 때 자산을 이용하여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이 끊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연가치가 농가 가족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40.4%에 달해 자산의 안정도 역시 상당히 낮았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이용하였을 때 최저생계비를 해결할 수 없는 농가는 3.4%, 소득과 자산 모두를 이용하여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농가는 6.9%로, 이들 10.3%의 농가는 갑작스런 생활의 요구에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파악된다.

2) 주관적 평가

농가 주부의 경제적 안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다음의 < 표 2 > 과 같다. 농가의 소득과 자산으로 생활비를 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13.3%, '약간 어려웠다'는 22.2%로 35.5%의 농가가

생활비 해결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서, 최저생계비와 실제 생활비의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소득과 자산의 비가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실제 생활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농가의 경제자원의 수준을 '생활비를 해결하는 정도'로 평가한 농가 주부는 42.3%인 반면, 생활비를 해결하고도 여유가 있었다고 평가한 농가의 주부는 22.2%에 불과했다.

3. 농가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16개 경제적 스트레스원의 심각도 총합을 100점 만점의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 표 3 > 와 같다. 전체 505개 농가의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평균 33.5(중앙값 31.3)로,

< 표 2 > 경제적 안정도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농가의 분포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평균 (중앙값)
빈도	67	112	213	101	11	504	2.76
(%)	(13.3)	(22.2)	(42.3)	(20.0)	(2.2)	(100.0)	(3.00)

< 표 3 >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분포

구분	20점미만	20-40	40점이상	계	평균 (중앙값)
빈도(%)	165(32.7)	179(35.4)	161(31.9)	505(100.0)	33.5(31.3)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나 별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항목별 스트레스원 경험정도를 유무만의 척도점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항목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농가가 포함된 상태로 단순히 산술 평균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 농가와 스트레스원 경험 농가간에 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점수를 비교한 결과(표 4 참조) 두 집단 모두 소득, 자산, 소비지출 영역의 순으로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각 영역별로 약 1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농가 주부의 소득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1.27이었으나, 소득 스트레스원

을 모두 경험한 농가 주부의 경우는 1.94였으며, 소비지출 영역은 각각 0.93과 2.07, 자산 영역은 각각 0.99와 2.00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전체농가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항목간 차이가 많았으나, 스트레스원 경험 농가는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전 항목에 걸쳐 '약간 심각했다'는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은 항목은 전체 농가에서 만성적 현금부족(1.54), 전반적인 소득(1.53),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1.38), 주택의 수리·증축(1.26), 의복과 유동자산(각각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원 경험농가의 주부는 만성적 현금부족(1.89), 문화생활(1.86), 주택의 수리·증축과 부채 및 이자상환(각각 1.84)의 순으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았다.

소득의 부족은 소비지출과 자산축적을 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스트레스원이며, 특히 소득의 불규칙성과 불안정성, 현금소득의 부족이 농가의 경제적 특성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농업소득은 수확기를 중심으로 1년 중 몇 차례에 집중되고 현물소득의 비율이 높으므로 농가는 만성적인 현금부족을 겪기 쉽다. 또한, 현금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소비지출과 영농자금으로 경제자원이 우선 분배되면서 내구재나 주택, 의복, 문화생활 등 한번에 목돈이 소요되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은 연기 또는 포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4.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 관련 변수

농가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안정도에 따른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총점과 각 영역별 평균점수의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 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지면상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만을 제시하였고, 문항수가 다른 하위영역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평균점으로 제시하였다.

1) 농가의 일반적 특성

(1) 가족원수

가족원수는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총점과 소

< 표 4 > 전체 농가와 스트레스원 경험 농가 주부의 스트레스원별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경 제 적 스트레스원		전체농가 (N=505) 평균(SD)	스트레스원 경험농가		
			평균(SD)	빈도	
소득 영역	1. 소득감소	1.53(0.91)	1.79(0.71)	432	
	2. 농외소득원	0.74(1.01)	1.79(0.76)	208	
	3. 만성적 현금부족	1.54(1.05)	1.89(0.76)	411	
	평균(SD)	1.27(0.74)	1.94(0.61)	175	
소비 지출 영역	4. 의료비	0.55(0.95)	1.82(0.80)	153	
	5. 음식물비	0.97(0.98)	1.64(0.73)	300	
	6. 의복비	1.14(0.93)	1.58(0.71)	363	
	7. 교육비	0.75(1.00)	1.75(0.76)	217	
	8. 조세공과금	0.74(0.94)	1.63(0.70)	227	
	9. 축조의금	0.58(0.87)	1.58(0.69)	185	
	10. 가구, 가전제품	1.38(0.95)	1.70(0.75)	410	
	11. 주택수리, 증축	1.26(1.09)	1.84(0.81)	346	
	12. 문화생활	0.99(1.11)	1.86(0.83)	269	
	평균(SD)	0.93(0.71)	2.07(0.57)	62	
	자산 영역	13. 부채, 이자 상환	1.08(1.09)	1.77(0.81)	297
		14. 유동자산	1.14(1.07)	1.80(0.79)	324
15. 농업투자		0.95(1.07)	1.80(0.79)	268	
16. 가계투자		0.77(0.97)	1.66(0.74)	234	
평균(SD)	0.99(0.84)	2.00(0.65)	134		

\* ) 각 항목별 스트레스 지각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3점임.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표 5〉 농가의 특성에 따른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LSD) 검증결과

N=505\*

변수	구분	빈도	총점 (0-100점) 평균LSD	영역별 평균점수 (0-3점)		
				소비지출영역 평균LSD	자산영역 평균LSD	소득영역 평균LSD
가족 원수 (명)	4 이하	155	30.4 a	0.8 a	0.9 a	1.2
	5	152	32.7 ab	0.9 ab	0.9 a	1.3
	6 이상	198	36.6 b	1.0 b	1.1 b	1.3
	F 값		3.76*	3.67*	5.01**	0.10
주부 연령 (세)	40 미만	187	33.0 ab	0.9 ab	1.0 b	1.2 a
	40-49	245	35.5 b	1.0 b	1.0 b	1.3 b
	50 이상	73	28.6 a	0.8 a	0.8 a	1.2 ab
	F 값		2.92	2.57	3.25*	2.15
주부 교육 수준	국졸이하	226	32.0 a	0.9	0.9 ab	1.2 ab
	중졸	185	36.4 b	1.0	1.1 b	1.4 b
	고졸이상	94	31.7 a	0.9	0.9 a	1.1 a
	F 값		2.55	1.20	3.50*	3.46*
재무 관리자	주부	184	30.4 a	0.8 a	0.9 a	1.2 a
	남편	116	39.9 b	1.1 b	1.2 b	1.4 b
	부부공동	165	34.0 a	0.9 a	1.0 a	1.3 ab
	F 값		5.53**	6.02**	6.49**	2.98
농가 유형	전업농	272	35.6 b	1.0	1.1 b	1.3 b
	1종겸업농	109	33.1 ab	0.9	1.0 b	1.4 b
	2종겸업농	119	29.0 a	0.8	0.8 a	1.1 a
	F 값		3.92*	2.34	4.76**	5.24**
영농 형태	곡류+없음	76	37.1 bc	1.1 b	1.0 b	1.3 bc
	기타+없음	23	28.4 ab	0.8 a	1.0 ab	0.9 a
	곡류+기타	264	32.0 ab	0.9 a	0.9 a	1.3 ab
	기타+곡류	60	28.4 a	0.7 a	0.9 a	1.2 ab
	기타+기타	72	41.6 c	1.2 b	1.3 b	1.4 c
	F 값		4.49**	5.38***	2.15	2.50*
부채 (만원)	없음	152	22.5 a	0.6 a	0.5 a	1.0 a
	1,000 미만	167	36.8 b	1.0 b	1.1 b	1.4 b
	1,000 이상	138	39.1 b	1.1 b	1.3 c	1.3 b
	F 값		28.65***	16.73***	43.23***	15.23***
무상 보조원	가족, 친척	196	31.3 a	0.9 a	0.9 a	1.2 ab
	이웃, 친구	58	33.9 a	0.9 a	1.1 bc	1.1 a
	사설기관	12	49.1 b	1.4 b	1.6 c	1.7 b
	경험없음	193	33.8 a	0.9 a	1.0 ab	1.3 ab
	F 값		2.83*	2.15	3.65*	1.74
유상 보조원	가족, 친척	77	29.9 b	0.8 b	0.8 b	1.2 a
	이웃, 친구	82	33.4 bc	0.9 b	1.0 bc	1.2 b
	금융기관	283	36.6 c	1.0 b	1.1 c	1.3 b
	경험없음	36	18.6 a	0.5 a	0.4 a	0.9 a
F 값		8.76*	6.75***	9.69***	3.32*	
객관적 경제적 안정도	하(3미만)	148	35.9 b	1.0 b	1.0 b	1.3 b
	중(3-5)	142	32.5 b	0.9 ab	1.0 a	1.3 ab
	상(5이상)	120	27.1 a	0.7 a	0.9 a	1.1 a
	F 값		5.56**	5.21**	3.65*	3.33*
주관적 경제적 안정도	하(1-2)	112	45.6 c	1.3 c	1.4 c	1.6 c
	중(3)	213	30.6 b	0.8 b	0.9 b	1.2 b
	상(4-5)	179	19.6 a	0.5 a	0.5 a	0.9 a
	F 값		65.44***	49.33***	45.12***	46.62***

\* p < 0.05, \*\* p < 0.01, \*\*\* p < 0.001

# 객관적·주관적 경제적 안정도는 각각 N=410, N=504

득영역을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원수가 많은 농가의 주부는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아서, 소비지출 영역에서는 6명 이상 집단과 4명 이하 집단간에, 자산영역에서는 6명 이상 집단과 5명 이하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이 가족원수에 상관없이 일정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가족원의 요구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및 자산관련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와 그 심각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원수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은 것은 소득, 소비지출, 자산 영역별로 가족원수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집단간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서, 연령에 따라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민정, 1984 : 김연정, 1991)의 결과와 일치하나, 그 양상은 상이했다. 40대는 생활주기상 자녀의 교육 등 여러가지 경제자원의 요구가 많은 시기여서 소비지출, 자산, 소득의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세 이상은 가계가 축소기로 접어들면서 소비지출의 요구가 줄어들고 자산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로 소비지출과 자산 영역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50세 미만 보다 낮았다.

(3)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총점은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복지수준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노자경, 1991 : 윤정혜, 1992 : 이종혜, 1993 등)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중졸 집단과 타 집단간에만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자산과 소득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중졸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4) 재무관리자

농가의 재무관리자 유형에 따라서도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서, 남편이 주관리자인 농가 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공동, 주부의 순이었으며, 소득 영역에 비해 소비지출과 자산 영역에

서의 차이가 약간 더 컸다.

이는 본 연구가 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평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남편이 재무관리를 하는 경우 필요한 돈을 타쓰는데서 오는 어려움과 우선순위 차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 및 관리경험을 통해 관리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농가유형

농가의 유형 중 농외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종 겸업농 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가장 낮았다. 소비지출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산과 소득 영역에서는 2종 겸업농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1종 겸업농과 전업농에 비해 낮았다. 이는 전업농의 자산이 농업경영을 위한 시설이나 자본으로 구성되므로 이의 이용과 관련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다는 점과 농외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소득의 비율과 규칙적인 소득유입의 기회가 높으므로 소득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6) 영농형태

농가의 주소득 작목과 부소득작목에 의한 영농형태에 따라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주소득 작목과 부소득 작목 모두가 곡류가 아닌 농가의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곡류만을 재배하는 농가, 곡류와 다른 작목을 병행하는 농가의 순으로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낮아졌고 기타를 주소득 작목으로 하고 부소득작목이 없거나 곡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지출, 자산, 소득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7) 부채

농가의 부채에 따라서는 그 수준 보다는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가 많았다. 부채가 있는 농가는 소비지출, 자산, 소득 영역 모두에서 부채가 없는 농가보다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보였다. 즉, 농가의 부채는 소득부족의 결과 또는 농업 투자의 급원으로서, 부채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는 상당정도 소비지출의 유보 또는 포기를 경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 유·무상 보조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무상보조와 유상보조(대출)를 주로 받는 급원에 따라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이웃이나 친구에게서 무상으로 보조를 받은 농가는 무상보조 경험이 없는 농가와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가 없어서 사적인 무상보조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기관 등 기타 사설기관에서 무상보조를 받아본 농가의 주부는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당히 높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으로 파악된다.

유상보조의 경험이 없는 농가의 주부 역시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유상보조원이 있는 경우는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 금융기관으로 갈수록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아졌다. 즉, 사적 지원망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농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농가라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 안정도

경제적 안정도의 객관적·주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더 큰 것은 스트레스가 주관적인 지각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 관련 변수의 영향력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농가의 특성과 경제적 안정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안정도의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간에 정적 상관관계(.3002,  $p < .001$ )가 있었으므로 두 변수를 각각 1점에서 3점으로 변환한 후 두 점수를 합하여 단일변수로 만들었다. 부채는 그 액수보다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고, 부채액수를 경제적 안정도의 객관적 수준 측정시 통제하였으므로 부채유무를 가변수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농가유형, 재무관리자 역시 가변수로 회귀식에 포함하였으며, 무상보조원과 유상보조원은 그 종류 보다는 경험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가 크고, 부채유무와 높은 상관을 갖으므로 회귀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농가영농 형태는 곡류를 제외한 나머지 작목의 사례수가 매우 적었으며, 곡류와 기타 작목의 조합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 본 회귀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는 가족원수,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재무관리자, 농가유형, 부채유무, 경제적 안정도 등 9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총점 및 하위영역에 대한 stepwise 방식의 중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sup>6)</sup>.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 총점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는 경제적 안정도, 부채유무, 주부연령의 세 변수로 이들의 설명력은 23%였다.

<표 6>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대한 관련변수의 중회귀분석(최종단계)  
(N=375)

영역	변수	B	SE B	BETA	T	R <sup>2</sup>	F값
총점	경제적안정도	-6.00	.79	-.35	-7.57***	.23	37.30***
	부채유무	12.43	2.13	.27	5.84***		
	주부연령	-.39	.16	-.11	-2.44*		
	(상수)	63.40	8.34		7.60***		
소비지출	경제적안정도	-.17	.03	-.32	-6.66***	.17	25.15***
	부채유무	.30	.07	.20	4.23***		
	주부연령	-.01	.01	-.10	-2.11*		
	(상수)	1.82	.27		6.62***		
자산	부채유무	.58	.08	.32	6.96***	.23	37.31***
	경제적안정도	-.20	.03	-.30	-6.33***		
	주부연령	-.02	.01	-.13	-2.78**		
	(상수)	2.06	.33		6.27***		
소득	경제적안정도	-.17	.03	-.29	-6.09***	.16	23.16***
	부채유무	.30	.08	.18	3.74***		
	농가유형(2중결업)	-.21	.09	-.12	-2.40*		
	(상수)	1.76	.14		12.83***		

\*  $p < .05$ , \*\*  $p < .01$ , \*\*\*  $p < .001$

6) 지면상 최종단계(3단계)만을 제시하였다.

회귀계수(B)에서 보듯이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0-100점)은 경제적 안정도(2-6점) 1단위가 증가할 때 6점이 감소되며, 부채가 있는 농가는 없는 농가보다 12점이 높고, 주부의 연령이 1살씩 높아짐에 따라 0.4점씩 감소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는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로서 경제적 안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안정도는 전체 분산의 14%를 설명하였으며, 부채유무가 추가되어 8%, 주부의 연령이 추가되어 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소비지출 영역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진 변수 역시 경제적 안정도, 부채유무, 주부의 연령이었으나,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17%로 전체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대한 설명력 보다 약간 낮았다. 소비지출 스트레스 지각수준(0-3점)은 경제적 안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0.17점이 감소되며, 부채가 있는 농가는 없는 농가보다 0.30점이 높고, 주부연령이 1살 높아지면 0.01점이 감소하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역시 경제적 안정도로 설명력이 11%였으며, 부채유무가 추가되어 5%, 주부연령이 추가되어 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자산 스트레스 지각수준(0-3점)에 대해 의미있는 관련 변수는 부채유무, 경제적 안정도, 주부연령으로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23%였다. 부채가 있는 농가는 없는 농가보다 0.58점이 낮으며, 경제적 안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0.17점이 감소하고, 주부연령이 1살 높아짐에 따라 0.02점이 낮아졌다. 경제적 안정도(8%) 보다는 부채유무의 설명력(14%)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연령의 설명력은 1%에 불과했다.

소득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경제적 안정도, 부채유무, 농가유형으로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16%였다. 경제적 안정도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0.17점이 낮아지고, 부채가 있는 농가는 없는 농가에 비해 0.30점이 높으며, 전업농이 2종 겸업농보다 0.21점이 높았다. 경제적 안정도는 소득 스트레스를 10% 설명하며, 부채유무가 추가되어 4%, 농가유형이 추가되어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부채가 있는 농가의 소득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은 것은 대부

분의 부채농가가 농업경영을 위해 생산성 부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소득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 없이는 부채와 이자의 상환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종 겸업농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가로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농가는 전업농가보다 소득 구조와 관계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안정도 등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지역 505개 농가 주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LSD) 검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 16개 경제적 스트레스원 중 개별 농가가 경험하지 않은 항목의 지각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전체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100점 만점의 평균 33.5점이었으며, 3개 하위 영역 중에서는 소득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가장 높았다.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농가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족원수, 농가유형, 재무관리자, 부채, 유무상 보조원 및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의미있는 변수였고, 경제적 안정도의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및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이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대한 이들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결과, 경제적 안정도, 부채유무, 주부의 연령이 의미있는 변수로서 이들 3변수의 설명력은 23%였다. 하위영역별 스트레스 지각수준 역시 경제적 안정도와 부채유무가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소비지출 및 자산영역은 주부의 연령이, 소득영역은 농가유형이 의미있는 변수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도가 낮거나, 부

체가 있거나, 주부의 연령이 낮은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경제적 안정도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컸으므로 경제적 스트레스 저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의 경제적 안정도는 농가 구성원의 요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많을 때 높으므로 경제적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의 요구수준을 낮추거나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수준 감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쉬우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은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농가와 공공정책 차원의 대처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 VI. 참고문헌

- 김미현, 류점숙, 신호식(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 111-126.
-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양희, 전세경(1989),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1호.
- 김정옥, 박순희(1990),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3호.
-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 및 관련 변수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 농림수산부(1994), 1993년 농가경제통계.
- 윤정혜(1992),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소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 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채(1989),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농민문제, 농업 정책연구 16(1).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Bur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Y : John Wiley.
- Conger et al.,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MF 52 : 643-656.
- Davis-Brown & Salamon(1987), Farm families in crisis : An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farm family research, Family Reactions. 36 : 368-373.
- Godwin et al., (1991), Wives off-farm employment, farm family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 JMF 53 : 389-402.
- Hill(1958),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49 : 139-150.
- Lazarus(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 Y. : McGraw-Hill.
- Marotz-Baden & Colvin(1986), Coping strategies : A rural-ruban comparison, Family Relations 35 : 281-288.
- McCubbin et al.,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JMF Vol. 42. No. 1 : 855-871.
- Rosenblatt & Anderson(1981), Interaction in farm families : Tension and stress, in Coward & Smith Eds., The family in rural society, Boulder Co. : Westview Press : 147-166.
- Rosenblatt et al. (1985), The family business, San Francisco : Jossey-Bass.
- Voydanoff & Donnelly(1988), Economic distress, family coping and quality of family life, in Voydanoff & Majka (Eds.),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 :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

노자경

- 97-116.
- Walker & Walker(1987), Stressors and symptoms predictive of distress in farmers, *Family Relations*. 36 : 374-378.
- Weigel & Weigel(1987), Identifying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two-generation farm families, *Family Relations*. 36 : 379-384.
- Wilhelm & Ridley(1988), Stress and unemployment in rural nonfarm couples : A study of hardships and coping resources, *Family Relations*. Vol. 37. :